

# 광주 주요 대기업, 추석 자금 조기 지급...중기 '숨통'

### 현대차, 1조2354억 '37일 먼저'...기아 협력사 250곳에 삼성전자, 농산물 온라인 장터 열어 내수 활성화도 기여

지역 주요 사업장을 비롯한 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업체 납품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 명절 소요 자금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추석을 맞아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 대금 1조2354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연휴 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주요 사업장인 기아 광주오트랜드와 관련, 부품과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

는 협력사에 대한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 내 기아 1차 협력사는 약 50개사로, 2차와 3차 협력사를 포함하면 250여개사로 추정된다.

우선 1차 협력사들은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37일 먼저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도 추석 이전에 2·3차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대금 조기 지급의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 자금이 2, 3차 협력사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사 임직원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 사업장을 둔 삼성전지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협력사의 물품 대금을 일찍이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협력사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국내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2011년부터는 물품 대금 지급 주기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려 협력회사들의 자금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전남에 삼성전자 1차 협력사는 50여개사다. 이들이 대금을 조기 지급받으면 지역 내 300여 2차, 3차 협력사에게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을 포함한 각 사업장에서 매년 명절마다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열고, 농산물 판매를 지원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장터로 전환했다.

임직원 대상 온라인 추석 장터를 통해 농수산물과 자매마을 특산물, 스마트공장 생산 중소기업 제품 등을 판매하는 등 명절을 앞두고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밖에 중흥건설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공사대금을 추석 명절 전에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공사대금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추석 명절 전에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50여개 공사현장의 협력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 및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중흥건설그룹은 내다봤다.

유통업계에서는 광주-전남에 백화점 1곳과 마트 9곳, 슈퍼 8곳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전국

4600여개 중소 파트너사에게 3500억원의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명절을 앞두고 해당 파트너사가 자금이 일시적으로 소모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롯데쇼핑의 설명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중소 파트너사를 위해 대금 조기지급에 나섰다"며 "추후 대금 조기 지급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파트너사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오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관련 신고 건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은행 일임형 ISA 수익률 '은행권 1위' 사수

광주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누적 평균 수익률이 하반기에도 은행권 1위를 지켰다고 9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7월 말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수익률을 공시했다.

광주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 전체 금융권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수익률 상위 10개사 가운데 이름을 올린 은행은 광주은행이 유일하다.

광주은행의 고위험 모델포트폴리오(MP) 수익률은 52.72%, 중위험 MP는 35.39%, 저위험 MP

는 15.36%로 나타났다.

일임형 ISA는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명세표)를 구성해 하나의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세제혜택 상품을 말한다.

전문가가 상품을 운용하며 저금리 시대 분산투자를 중심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유동적인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은행 일임형 ISA 운용팀은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분산투자 전략과 성장 부문 장기투자 전략을 펼쳐왔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글로벌 소

비재 펀드 펀딩 전략도 더했다.

장진섭 WM(Wealth Management-자산 관리) 사업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금융시장이 붕괴된 상황을 주식투자 비중 확대로 대응하고, 글로벌 분산투자와 성장성 높은 산업군에 대한 전략이 수익률 성과를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일임형 ISA의 지속적 수익률 개선을 추구하고 고객 자산관리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는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양진식·맨 오른쪽)와 광주·전남 5개 기관이 9일 전남대에서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수자원공사 제공>

## 광주·전남 기관 '물환경 산업 육성' 협력

### 영·섬유역본부·광주시·전남대 등 5곳

광주·전남 6개 기관이 '물산업 실증센터' 조성 등 물환경 산업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9일 전남대학교에서 5개 기관과 '광주·전남 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참여 기관은 영·섬유역본부와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전남대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광주·전남 물산업 실증센터 구축, 기관별 보유 인프라 활용, 교육 및 연구, 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지역 물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양진식 영·섬유본부장은 "광주·전남에 물산업 실증센터를 조성할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코스피	3114.70 (-48.29)
코스닥	1034.62 (-2.60)
금리(국고채 3년)	1.499 (+0.010)
환율(USD)	1169.20 (+2.50)

## 위니아딤채 리콜 제품 찾아라

### 농어촌 등 2만2000여 가구 현장 실태조사

위니아딤채는 자발적 리콜 대상 제품인 15년 이상 장기 사용한 노후 김치냉장고 담체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을 찾기 위해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와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 등 2만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해 숨어있는 리콜 제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앞서 위니아딤채는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잇

따라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김치냉장고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자발적 리콜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278만대 리콜 대상 제품 중 50% 수준인 약 140만대를 리콜 조치했다.

화재 발생이 거의 없었던 20년 전 생산·판매된 제품과 60ℓ 급 소형 제품을 합한 총 81만대를 제외한다면 리콜 대상은 약 60여 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한전, 공기업 첫 '위험관리평가위' 신설

한국전력은 공기업 최초로 '위험관리평가위원회'를 9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영호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위험관리평가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전 감사위원장을 지낸 노금선 ㈜이오스파트너

즈 대표이사는 투자분석·기업감사 부문을 맡는다. 금융감독원 출신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회계·재무, 사회적가치 계량평가 전문가이다. 한전 상생협력본부장을 역임한 박권식 LG유플러스 전력사업 상근 자문은 경영전략과 전력사업 구조조정 부문을 담당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들은 자문기구로 활동하며 한전의 주요정책, 에너지 신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위험(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이날 위원들은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최영호 상임감사는 "도전적·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진, 적극면책' 대원칙을 분명히 세워가겠다"며 "탄소중립과 해상풍력 건설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